

6·25戰爭期の 戰史編纂과 運營體系

白 奇 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머 리 말
2. 전시 전사편찬의 기능
3. 전시 전사편찬체계와 운영
4. 맺 음 말

1. 머 리 말

전쟁은 일상적인 모든 생활의 흐름을 일시에 혼란과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다. 비단 개인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의 기능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전쟁의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 곧 군사력에 의한 전쟁억지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군의 존재 목적이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인 만큼 평소에 군은 교육·훈련을 통해 고도의 전투준비태세와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군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는 국방·군사의 제 분야가 망라되고 있다. 여기에는 전쟁 사태가 발발할 경우에 전황 및 전쟁수행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하여 역사적으로 기술하여 전쟁의 기록을 남기고 작전을 분석하며, 그 역사적 교훈을 반추해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종의 기록과 편찬작업의 역할도 포함된다. 멀리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도 그러했지만 가깝게는 6·25전쟁 때 역시 전사를 기록하는 작업이 있었다.

6·25전쟁 당시 군의 전사기록 및 편찬은 처음부터 공식적인 기구로 출발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황이 보다 안정된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그 체계가 정비되었다. 게다가 미군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 현대전과 연합작전에 대한 전사적 기록을 전해 주었다. 국방부가 1951년부터 매년 1권씩 1956년까지 발간한 『한국전란지(Korea in War)』가 그것이다.¹⁾

본고에서는 6·25전쟁 당시 국군의 전사기록 및 편찬활동과 그 운영체계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군과 민간 자원을 망라하여 국가적인 대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긴 당시의 사례는 오늘날 전시정책의 하나로서 전사편찬 업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주는 실증적인 경험이 된다 할 것이다. 먼저 일반적인 전시 군사편찬의 기능을 검토해 본 후, 6·25전쟁 당시의 ‘전사편찬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사편찬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전사기록 및 편찬의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전란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안보환경의 전환과 자주 국방기반 조성, 1971~1976』, 『국방편년사, 1971~1975』, 2001, i~ii쪽; 김현영, 『국방사 편찬의 역사적 의의』, 『군사』 제45호, 2002, 47쪽 참조.

2. 전시 전사편찬의 기능

(1) 전사의 기술·편찬

전사란 전쟁사를 말한다. 광의적으로 전쟁사가 역사학 일반에서 전쟁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협의적으로는 군사사 차원에서 전투사를 포함한 작전술의 운용을 중심으로 한 전쟁사를 뜻한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전쟁사가 군사사에서 비중있고 의미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실, 학술사적으로 말하자면 군사사가 궁극적으로 전쟁 및 전투와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전쟁사는 ‘군사사의 총화’로 간주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전쟁사의 연구에 기초가 되고 있는 군 당국의 기록은 상세한 정보에 의한 군사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전시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²⁾

일반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전쟁의 기록과 자료 수집은 각국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예컨대, 6·25전쟁이나 걸프전에 대해 미국 정부가 행한 노력은 국가의 전략·정책적 차원에서 전쟁·전쟁사의 기록이 얼마나 중시되고 있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1950년 10월 16일, 미 제8군의 참모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보자료수집을 위해 이른바 ‘인디언헤드 특수부대(T/F Indianhead)’가 편성되어 평양·서울 등의 전투현장에서 북한군 정책문서와 전쟁계획·명령·회의·보고문서를 노획했으며,³⁾ 미국 군 당국은 1960년대에 그 같은 원자료의 바탕 위에서 ‘한국전쟁(Korean War)’에 대한 공간사의 편찬을 완료하였다.⁴⁾

2) J. C. A. Stagg, 「군사사란 무엇인가」, 임지현 외, 『오늘날의 역사학』, 역사비평사, 1993(2판), 50쪽.

3)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MH Pub 20-2, 1961, 652쪽.

걸프전 직후에 미국의 전쟁관련 보고서나 답사자료집의 간행 또한 전쟁의 기록 및 자료보존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시사한다. 미 국방부에서는 1992년 4월 의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는데,⁵⁾ 이 보고서는 전략 및 자원 담당 국방차관 I. Lewis Libby를 책임자로 미 합참과 중부군사령부 협의하에 구성된 George T. Raach 등을 포함한 26명의 작성반에 의해서 완성된 공식적인 미 국방부의 걸프전 관련 자료집이었다. 미 국방부의 걸프전 관련 보고서 외에 미 정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걸프전에 관한 답사자료집을 발간하여 세부적인 전쟁 기록 및 자료를 수집·정리함으로써 장차 걸프전에 관한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걸프전사를 서술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⁶⁾

이러한 미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편찬한 ‘한국전란1년지’부터 ‘한국전란5년지’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여 편찬한다는 의미를 지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전사 편찬의 한 형태였다. 한국사 상의 전란지 편찬을 비롯한 전사나 병가류의 서적 편찬은 전통적인 왕조시대의 편찬사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왕조 차원에서 사관제도를 두어 국왕의 통치행위는 말할 것 없고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까지를 자세하게 기술한 관찬사(官撰史)를 편찬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고려사』, 『고려사절요』, 나아가 『조선왕조실록』 등이 그 예다.⁷⁾ 전통시대에 왕조사 편찬 외에 전사나

4) 미국의 한국전쟁 관련 공간사는 다음과 같다.: *US Army in the Korean War(series);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Naval History Division, 1962; *U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USAF Historical Division, 1961;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Historical Branch, G-3, Headquarters, US Marine Corps, 1954.

5)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 Final Report to Congress, Department of Defense, 1992. 4.

6) *Gulf War Survey Series* (I~IV & Summary Report).

7) 조동걸 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하)』, 창작과 비평사, 1994;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5 참조.

각종 병서관련 자료의 편찬도 적지 않았다. 그러한 편찬 가운데는 『동국전란사(東國戰亂史)』와 같은 왕조 차원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부터 『병자일기(丙子日記)』와 같은 개인적인 저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⁸⁾

이러한 관점에서 6·25전쟁시 국방부가 편찬한 공간사 발간은 역사적으로 깊은 연원을 갖는 의미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된다. 그것은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결의 속에서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한국전쟁사’ 편찬의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던 것이고,⁹⁾ 나아가 전문적인 군사사 연구의 기초로서 장차 국방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군사학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⁰⁾

(2) 6·25전쟁시의 전사편술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까지 우리 군의 국방조직은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었다. 신생국군으로서 경비대에서 정규군으로 정식 편성을 갖추기는 했지만 군 구조나 편성이 아직 채 완비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거치면서 국방부에 편성된 전사편찬기구를 제외한다면 우리 군의 국방역사나 전쟁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편찬하는 제도상의 조직이나 기구는 없었다고 해야 하겠다.¹¹⁾

- 8) 金聖洙 外, 「韓國軍事類 典籍의 發展系譜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9號, 1993 참조.
- 9) 아마도 전쟁기간 중의 ‘한국전란지’ 편찬이 없었다면 북한이 이른바 『조국해방전쟁사(祖國解放戰爭史)』(1959년)를 발간하여 세계 각국에 배포하여 선전활동을 한 것에 대응한 우리 국방부의 『한국전쟁사』의 편찬 결정(1963년)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文熙旻, 「發刊辭」, 『韓國戰爭史』Ⅰ, 1967). 이러한 편찬 결정이 있는 후 『韓國戰爭史—解放과 建軍』이 1967년 10월에 그 첫 권으로 발간되었다.
- 10) 군사연구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주영복, 「軍史研究의 重要性」, 『軍史』(創刊號), 1980, 8~9쪽; 박정인, 「民族軍史의 定立」, 10~12쪽; 이희성, 「軍史業務의 強化」, 12~13쪽; 윤자중, 「軍과 軍史」, 18~21쪽 참조.

잘 알다시피, 역사상 1948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에 근거하여 국방조직의 편성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편성은 군정을 장악하는 기구로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령을 담당하는 국방부 내 참모총장제를 운영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국방부에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이 있었고, 그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및 이를 관장하는 총참모장과 참모부장(參謀副長)이 있었다.¹²⁾

이러한 국방부 조직과 군 조직의 편성에 이어서 1948년 12월 7일 국방부의 직제가 공포됨으로써 국방부 본부와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 편성을 위한 법제적인 작업이 뒤따랐다. 당시의 국방부 직제에 의하면 국방부 본부에 총무과, 보도과, 회계감사과,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및 제5국이 설치되었다.¹³⁾ 국방부 직제상으로 제1국이 육군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고, 제2국은 해군에 관한 사항을 제3국은 공군 관련 사항을 그리고 제4국이 징집을 관장하고 제5국이 총포 등 병기를 관장하였다.¹⁴⁾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

11)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군 역사기관이 없었다고 하여 군의 역사기록의 전통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육군본부의 고급부 관실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육군역사일지』에서 보듯이 건국초기의 우리 군의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초에 『육군역사일지(1945~1949)』(手筆本)로 이루어진 육군전사(前史)일지(제1집), 육군역사일지(제2집), 국군역사(제3집)의 합본이다. 그후 5년분이 추가되어 1945~1950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한 수필본 『陸軍歷史日誌(1945. 8. 15~1949. 8. 14)』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拙著,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7~20쪽 참조.

12) 國防部, 『國防部史』第1輯, 1954, 17쪽.

13) 『國防部 職制』(大統領令 第37號, 1948. 12. 7).

14) 그런데 당시 일지를 보면 1948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37호의 공포로 국방부 본부에는 군무, 정훈, 관리 3국 외 비서실, 본부사령실 등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 기록이나 『국방사』①, 224쪽이나 『국방사』②, 90쪽 등에서는 모두 제1국(군무국), 제2국(정훈국), 제3국(관리국), 제4국(정보국), 그리고 별도의 항공국이 있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국방부 각국 편성은 최초의 『국방부직제』(대통령령 제37호)와 달리 실제로는 다소 달랐다고 하겠는데, 항공국 또한 1949년 6월 28일 설치될 때까지 편제상의 기구에 불과했던 것이다(國防部, 『國防史』①, 1984, 224쪽; 大韓民國國防部, 『國防部史』第1輯, 1954, 153~154쪽; 空軍本部, 『空軍發展略史』, 1954, 6쪽; 國防部, 『韓國戰爭史』①, 1967, 600쪽; 황헌친의 증언, 2002. 5. 15; 장지량의 증언, 2002. 6. 18).

도 국방부 내에서 군 역사에 관한 기록이나 전사 편찬에 대하여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없었다.

그러한 기구 편성은 1949년 5월 9일 기구간소화 작업이 진행된 직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제 국방조직으로서 국방부 참모총장직과 연합참모회의는 폐지되고 육군본부와 해군본부의 총참모장만 존속하였다. 당시 개편의 방향은 국방태세의 만전을 위해 부대의 확장과 질적 향상을 목표로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키는 것에 중점이 있었다.¹⁵⁾ 그리고 전쟁 중인 1951년 8월 1일부로 종래의 제4국을 해체하는 대신 인적 자원의 동원을 담당할 병무국을 창설하고 제4국으로 삼았다.¹⁶⁾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 조직으로서 전사 편찬을 위한 기구가 공식적으로 운영된 것은 1952년 11월 1일 전사편찬회의 설치가 처음이었다. 전사편찬회는 1953년 5월 15일의 국방부 기구표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¹⁷⁾ 그러나 『국방사』②에 정리되어 있는 전사편찬회가 국방부 본부의 공식 기구로 편성된 배경이나 그 출처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제2국(정훈국)에 소속되어 있는 전사편찬회와 군사영화촬영소가 6·25전쟁 도중에 생긴 국방부의 기구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각군 역시 각기 전쟁기를 맞이하여 전사편찬기구를 편성하여 운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전사편찬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5) 國防部, 『國防部史』第1輯, 19쪽.

16) 國防部, 『國防部史』第1輯, 154~155쪽.

17) 國防部, 『國防史』②, 1987, 92, 95쪽.

3. 전시 전사편찬체계와 운영

(1) 전사편찬회의 발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전사편찬의 기능이 국방조직상으로 편성된 것은 6·25전쟁 중이었다. 다만 그 조직의 형성을 언제 어느 때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는 사실의 확인과 재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의 와중에서 전사편찬의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국방기구의 운영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고서도 실제로 운영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군의 지휘체계나 직무상 그 직책에 부여된 권한과 연계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전사기록과 관련하여 우선 『한국전란1년지』의 발간을 둘러싼 전사편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란1년지는 1951년 8월 1일 인쇄되었고, 10월 15일 발행된 6·25전쟁과 관련된 국방부의 최초의 공간사인 전사서이다. 여기의 「序」에는 당시 전사편찬회의 발족과 그 경과에 대한 약사가 보인다. 그 내용을 토대로 국방부에 전사편찬 조직이 편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950년 4월 15일 사학자인 이선근(1905~1983) 박사는 군문에 투족하여 국방부의 제3대 정훈국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¹⁸⁾ 이후 그는 개인적으로

18) 李瑄根은 호가 震城이며 1929년 와세다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정치부장·편집국장을 지냈다. 1945년 8월 건국준비위원이 되었고, 1947년 대동청년준비위에서 활동하다가 그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주임교수로 부임하여 학생처장을 역임하고 1949년 법과대학 학장서리를 역임하다 1950년 2월 국방부 정훈국장이 되었다. 6·25전쟁 중에는 육군본부 정훈감과 대학학도의용대 총지휘관을 거치면서 정훈에 크게 공헌하였다. 1952년 준장으로 예편하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로 복직하였다. 1954년에는 교육부장관이 되어 국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겸직하면서 조선왕조실록 영인작업을 계획하여 학계와 문화계에 공헌하였다. 1954년 서울대학교에서 문학박사, 그리

전황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발생하는 목전의 사실을 수록하기 위해 일기를 작성하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전황에 대한 기록은 얼마후 후퇴작전 중에 대전에서 국방부에 전사계(戰史係)를 두는 형태로 바뀌었다. 수명의 문관이 전황과 내외정세의 일지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이선근 정훈국장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점에 느낀 바 있어 사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군문에 투족하게 된 필자는 금차의 동관 멸공성전이 시작되던 그날부터 전황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발생하는 목전의 사실만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나 수록하여 두기를 꾀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으로는 일기장의 기입을 힘써하게 되었으며 정훈국으로는 후퇴작전 중의 대전서부터 전사계를 두어 문관수명으로 하여금 전황과 내외정세의 일지만이라도 계속케 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도의 기초자료만이라도 수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필자 개인이 착수하였던 계획은 거년(지난해) 팔월 부상당하여 입원하는 통에 일기장도 분실하고 병상에 누어 다시 계속할 정력도 상실한 때문 완전히 포기하였고 오로지 상술한 전사계의 업무만은 미미하게라도 계속하도록 노력하였다. 원체 치열한 지연작전을 거듭하면서 이동이 빈번하였고 인원도 부족하였던 터이라 문자 그대로 겨우겨우 명맥만을 유지한데 불과하였다.¹⁹⁾

6·25전쟁이 지연작전의 단계를 벗어나 유엔군의 반격작전으로 전환되어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전황이 회복되자 전사편찬의 중요성이 제기되었고,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전사편찬업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1950년 10월부터 사계의 권위자를 망라한 전사편찬 업무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병도·김상기 교수 이하 신도성·이용희 교수를 위원으로 초빙하고 다시 사계의 소장학자 김원

고 대만 중화학술원과 경희대학교 및 미국 볼 스테이트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1974년 동국대학교 총장,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을 역임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1999).

19) 大韓民國 國防部 政訓局 戰史編纂會, 『韓國戰亂一年誌』, 1951, 16쪽.

룡·한우근·전해중·정병학·민석홍 등을 역원으로, 그리고 정훈국의 박종식 소령을 책임장교로 배치하여 정식 기구로서 전사편찬회(戰史編纂會)를 발족시켰다.²⁰⁾

그러나 전사편찬회는 사무소와 비품·장비 등이 부족하여 이동을 거듭하던 중 12월 하순경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아군이 후퇴하게 되자 사무소를 부산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51년 1월 상순부터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자료수집 및 편찬 사무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전사편찬회는 국방부의 정훈국과 함께 그 조직 및 업무체계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었다.

그해 1월 15일 국방부 정훈국은 이미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정훈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를 확장하며 3과 3실 1위원회(행정실, 기획실, 편집실, 정훈과, 선전과, 보도과, 기획전문위원회)를 두고 장교 99명과 문관 514명으로 각종 선전대를 편성하여 대외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역사를 편찬하려는 목적 하에 사계의 권위자를 중심으로 한 전사편찬위원회를 두게 되었던 것인데, 그 무렵 중공군의 참전으로 아군이 후퇴하면서 3실을 과로 승격시켜 6과로 개편하고, 이어서 행정과, 기획과, 지도과, 보도과, 조사과의 5과와 전사편찬회, 군사영화촬영소를 두어 그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였다.²¹⁾

전사편찬회에서는 1951년 10월에 『한국전란1년지』(4×6배판 800면)를 편찬 간행하여 국내·외 각계각층에 배포하여 6·25전쟁 이후 1951년 5월말까지의 전쟁기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이는 군사영화촬영소가 설치되어 기록영화로 「정의의 진격」(1부·2부)이 제작되어 세계 각국에 전하여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널리 선양하고 열국의 지원을 획득하고자 한 것

20) 『國防部本部 歷史日誌(1946~1966)』(手筆本, 戰史編纂委員會 史料 No.35)에 의하면, 1950년 9월 28일 9·28 수복후 정훈국내에 6·25동란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전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병도 박사를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21) 大韓民國國防部, 『國防部史』第1輯, 203-204쪽.

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²²⁾ 두 기구는 비록 형태는 달랐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한 6·25전쟁에 대한 기록화와 문자기록을 통한 공식적인 전쟁 기록이었던 셈이다.

각군에서도 전쟁기를 통해 전사편찬에 대한 기구를 편성하고 전사기록을 포함한 군사기록을 시작하였다. 육군의 경우는 1951년 2월 16일 전사감실을 창설하고 전투사 중심의 전사편찬을 하였다. 그후 전사감실은 1953년 11월 10일 군사감실로 증편되어 전사 외에 부대사를 편찬하였으며, 1961년 10월 1일 작전참모부의 군사처로 통합되었다가 1971년 1월 1일부로 군사연구실로 독립했던 것이다.²³⁾ 전쟁기 육군 전사감실에서는 전 7권의 전방작전을 다룬 『육군전사』를 비롯하여 후방작전을 기록한 『후방전사』를 편찬하였다.²⁴⁾

해군 역시 전시인 1951년 4월 1일 해군본부 작전국 내에 전사과를 설치하고,²⁵⁾ 다시 1951년 9월 10일부로 전사편찬실로 개편하여 총참모장 직속 하에 두고 운영하였다. 해군의 전사편찬실은 편찬실장(0-1)과 예하에 건군사반(CV-5), 작전사반(CV-15), 사진반(CV-6), 행정부(0-1, EM-2, SA-2, CV-2)로 구성되어 있었다.²⁶⁾ 해군의 전사편찬실에서는 수 권으로 된 『대

22) 大韓民國國防部, 『國防部史』第1輯, 207-208쪽.

23)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일반현황』(육본내부자료).

24) 陸軍本部 編, 『陸軍戰史』第1卷(草稿本, 石印本, 1952. 1. 5); 陸軍本部 軍史監室, 『陸軍戰史』第1卷(1952. 4. 10)~第7卷(1957. 12. 28); 陸軍本部 軍史監室, 『後方戰史』(軍需篇), 1955.

25) 『해본작명령 제20호』(1951. 3. 25) 해군 전사과의 편성은 과장 영관급장교 1명 외에 하사관 1명, 수병 1명, 그리고 문관 2, 3급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海軍本部, 『海軍編制史』, 1-12쪽).

26) 海軍本部, 『海軍編制史』제1권, 1970, 1-16쪽. 전사편찬실의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 해군본부 군사연구실에서 ‘손원일 제독의 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와 만난 임성채 중령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손원일 총장은 당시 전사과를 전사편찬실로 개편했는데, 당시 문화가 육당 최남선, 수주 변영로, 그리고 현민 유진오 등과 같은 저명한 인사들이 군무원으로 종사하면서 해군의 전사편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해군본부 군사연구실 임성채 중령의 조언. 2004. 5. 31).

한민군해군사』(작전·행정편)를 1954~1961년까지 편찬했으며, 1955년에는 『한국해양사』를 편찬하였다.

한편, 공군에서는 1953년 9월 중 고급부관실에서 이관된 전사업무에 관한 토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10월 1일부로 공군본부 편제에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정훈감실을 개편함과 동시에 전사편찬실과 군목실을 증편하게 되었다. 당시 전사편찬실은 0-3, AM-1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조직 구성이었다. 그해 10월 분산된 자료를 수집하여 『공군발전사』 제1권을 발간하였다.²⁷⁾

그리고 해병대의 경우는 비록 독립된 전사편찬실을 없었지만 사령부의 작전교육국에서 교재 제작을 수행하는 한편, 전사편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해병발전사』와 『해병사』를 편찬 발간하였다.²⁸⁾

(2) 전사편찬회의 운영

전사편찬회는 1951년 10월에 『한국전란1년지』를 편찬함으로써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체계를 갖추면서 안정적인 편찬단계에 들어갔다. 『한국전란1년지』 편찬에 이어서 곧 바로 2년지의 편찬에 착수하여 1953년 2월말에 그 완성을 보아 4월중에 배포를 완료하였다. 그러한 방식으로 편찬한 전란지는 전후 모두 5차례에 걸쳐 1956년까지 계속 되었다.²⁹⁾ 그런데 전사편찬회의 활동은 전란지 편찬으로만 그친 것은 아니었고 국군장병의 국방사상 함

27) 大韓民國 國防部, 『政訓大系』 I, 靑丘出版社, 1956, A74.

28) 海兵隊司令部 作戰教育局, 『海兵發展史』, 光明印刷公社, 1961; 同局, 『海兵史』, 1963.

29) 6·25전쟁 당시의 전사 편찬 결과는 『한국전란지(Korea in War)』의 형태로 간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란1년지(1950. 5. 1~1951. 6. 30)』, 1951. 8. 1일 인쇄, 10. 15일 간행; 『한국전란2년지(1951. 7. 1~1952. 6. 30)』, 1953. 4. 15일 인쇄, 4. 20일 간행; 『한국전란3년지(1952. 7. 1~1953. 7. 27)』, 1954. 2. 25일 인쇄, 3. 1일 간행; 『한국전란4년지(1953. 7. 28~1954. 7. 31)』, 1955. 5. 15일 인쇄, 6. 1일 간행; 『한국전란5년지(1954. 8. 1~1955. 7. 31)』, 1956. 5. 15일 인쇄, 6. 1일 간행.

양을 목적으로 한 『대몽항쟁사(對外抗爭史)』와 같은 책자를 사계의 권위자에게 위촉하여 발간하는 등의 역할도 병행되었다.³⁰⁾

이렇듯 전사편찬회의 활동은 독자적인 전사편찬에 의한 것이었지만 전쟁 도중에 미군과 전사편찬업무에 있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그 경험을 축적하면서 더욱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1951년 1월 15일 공식적으로 발족한 전사편찬회는 처음부터 미 제10군단의 전사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활동을 전개하였다. 미 제10군단 예하에 국군전사편술부를 설치·운영한 것은 국군의 전사편찬활동에 있어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당시 그 같은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전사편술부의 조직이나 활동은 「한국군 전편술 설치안내 및 미10군단지휘보고 작성안내서(韓國軍 戰編述 設置案内 及 美十軍團指揮報告 作成案内書)」라는 문건을 통해서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³¹⁾

국군전사편술부는 미 제10군단사령부에 설치되었고 국군전사편술부장은 현봉학(玄鳳學)이 맡았다.³²⁾ 1951년 1월 17일 미 제10군단 민사부에 근무하고 있던 현봉학은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편술부 조직구성에 착수하게 되었다. 국방부의 정훈국장 이선근 장군의 동의를 있었고, 아울러 정훈국 전사편찬회의 이병도(李丙燾) 위원장을 비롯한 제위원들의 동의도 있었다. 이로써 국군전사편술부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을 비롯하여 전사관 엘우드(Atwood) 소령과 쇼트(Short) 소령의 제의와 한국군의 협조로 이룩한 연합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러한 경위에 대해 당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국군전사상 아직 보지 못한 역사적 사실이 전개되

30) 大韓民國國防部, 『國防部史』 第1輯, 302-303쪽.

31) 「韓國軍 戰編述 設置案内 及 美十軍團指揮報告 作成案内書」(國防部, 手稿本, 年度未詳)는 현재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霞城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하성문고는 초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을 지낸 이선근 박사가 소장하고 있던 도서 및 자료를 모아 둔 컬렉션이다.

32) 「美 第十軍團司令部 韓國軍 戰史編述部 設置案内」(國防部, 手稿本, 1951. 1. 29).

고 있다. 그것은 즉 용약 한국전선에 참가하여 분투하고 있는 우리 전사편술부의 업적이다. 전반 동북전선에서 미 제10군단 예하 한국군 제1군단은 험악하고도 찬연한 전투작전을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훌륭한 공적은 충분히 전사에 기록되지 못했으며 이 사실은 자타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었다. ... 이 조직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에 대하여 미 제10군단사령관을 비롯한 상기 제씨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의 사업발전을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바라는 바이다. 더욱 E. M. Almond 중장은 1월 30일 현봉학 전사편술부장에게 친히 서한으로 새로운 사업에 격려함이 있었다. 전사편술의 과업과 목적은 별지에 개개히 기록되어 있으나 시시각각으로 진행되는 전투기록이 과학적으로 분석, 논평되며 다음날의 작전에 산 교재로 활용될 것이다. 이 사업은 한미 양국전사과의 유기적 연락활동과 협동으로써만 더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의 영웅적 전투사실이 우리 민족 후세에 찬란한 역사로서 전승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세계전사상의 빛나는 한 토막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니 미 제10군단사령부 전사과 한국군전사편술부 사업의 의의와 사명의 중대성을 더욱이 느끼는 바이다.³³⁾

이렇게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전사편술부는 미군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며, 다시 전사편술부는 그 상위기구로 국방부 정훈국의 전사편찬회와 연결되었다. 따라서 국군전사편술부는 미 제10군단 전사과(Historical section, G-3 작전참모 예하 소속)와 병행체제를 유지한 셈이다. 그리고 미군은 미 제10군단 전사과 예하에 수개의 전사반(U.S. Hist. Team)을 운영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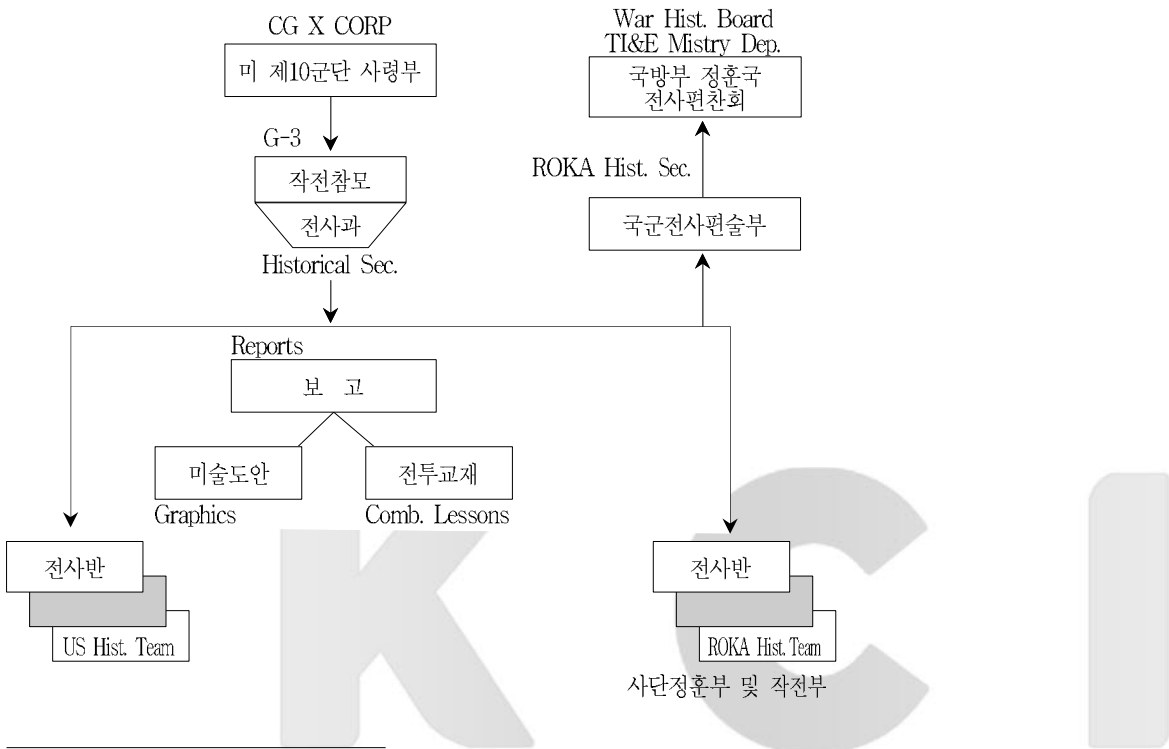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한국전란1년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의 명령으로 미 전사 및 해 군단에 배속된 국군 사단의 전사를 동시에 편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 미 군단에서는 한인 전사관과 중군화가의 인선을 우

33) 『美 第十軍團司令部 韓國軍 戰史編述部 設置案內』, 8쪽.

리 정훈국에 의뢰했던 것인데, 이로써 정훈국 전사편찬회의 중진 수명을 전출했다는 것이다.³⁴⁾ 이들이 앞서 언급한 대로, 미 제10군단 전사과와 병행체제를 유지했던 국군전사편술부 예하에도 전사반(ROKA Hist. Team)이 편성되어 활동하였다. 국군의 전사반은 국군의 사단 정훈부 및 작전부에 소속되었다.

그 같은 편성을 도표화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미 제10군단 예하 한·미 전사편찬 조직의 편성³⁵⁾



34) 이선근, 『한국전란1년지 발간에 제하여 -전사편찬회의 발족과 그 경과』, 『韓國戰亂1年誌』, 1951, 16-17쪽.

35) 『미 제10군단 한국군전사편술부의 수행할 과업』, 2쪽(國防部, 『美 第十軍團司令部 韓國軍 戰史編述部 設置案内』, 所收).

이러한 편성은 결국 한·미군간에는 군단급에서 미 제10군단 작전참모 예하의 전사과와 국군전사편술부를 병치시키는 한편, 그 예하에 별개의 지휘체계로 미군과 국군의 전사반을 가동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군단급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되 그 예하에서는 별도의 독립조직으로서 전사반이 운영되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미 제10군단 소속의 국군전사편술부의 운영은 국방부 정훈국의 전사편찬회의 운영과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군의 전사활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었기 때문인데, 당시 미군은 상당한 예산과 편제 아래 우수한 전사관과 종군화가를 예하 단대에 배치하고, 미군이 생산하는 실제 업무에 관한 생생한 사료를 매일의 문서와 기록으로서 수집하고, 이를 다시 사단-군단에 이르는 동안 전훈의 귀중한 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이를 종합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본국에 송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군의 운영형태는 한국군에게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국방부의 전사편찬회는 기구와 예산의 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임했다고 한다.

당시의 국방부 정훈국의 예산편성 내용을 각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국방부의 전사편찬회는 그 운영방향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해갈 수 있었다. 전사편찬회는 위원장·부위원장, 조무원, 하사관 등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일치하여 후일의 정사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전란 중심의 광범위한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전황 및 그 관계 사실의 종합적인 일지 작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중요문헌의 수집은 물론 통계, 도표작성, 지도 및 사진류의 선집 등 다양한 메뉴얼을 마련했으며, 나아가 전쟁 목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수개월에 걸친 연구검토 끝에 1951년 6월 『전쟁목적론』이란 책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국방부 정훈국과 육군정훈감실의 요청으로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공에 따라 특별한 교재의 작성은 물론 수시로 교단의 강의도 담당하였다.³⁶⁾

<표 2> 국방부 정훈국 예산사용 계획서(1951년도)³⁷⁾

款 目	項 目	金 額	百 分 率
인 쇄 비		114,000,000	31%
	승리일보(년 1만부)	47,450,000	(13%)
	만화승리(년 52회 1회 2만부)	15,600,000	(4%)
	정훈주보(년 52회 1회 5천부)	26,000,000	(7%)
	각종교재(년 2만 4천부)	21,600,000	(6%)
	각종포고문(년 1만 2천부)	840,000	(0.3%)
	포스타(년 1만 2천부)	1,440,000	(0.4%)
	빼 라(년 12만매)	600,000	(0.16%)
	기 타	470,000	(0.14%)
수 수 료		23,000,000	6%
	전사편찬비(월 100만원)	12,000,000	(3.2%)
	국방원고료(6회)	4,800,000	(1.2%)
	각종원고료	3,600,000	(0.95%)
	종군기자단	2,400,000	(0.6%)
	기 타	200,000	(0.05%)
소모품비		231,000,000	63%
	갱 지(120연)	14,400,000	(4%)
	선화지(150연)	144,000,000	(40%)
	C모조지(12연)	2,400,000	(0.64%)
	A모조지(25연)	8,750,000	(2%)
	촬영재료	18,000,000	(5.1%)
	사진재료	18,000,000	(5.1%)
	미술재료	8,400,000	(2%)
	화가용 소모품	16,800,000	(4.1%)
	기 타	250,000	(0.06%)
계		368,000,000	100%

36) 이선근, 『한국전란1년지 발간에 대하여 -전사편찬회의 발족과 그 경과』, 17쪽.

37) 大韓民國 國防部, 『政訓大系』I, 靑丘出版社, 禮紀 4289年, A52쪽.

여기에서 『한국전란년지』의 내용을 체제와 특징을 통해서 잠깐 살펴본다.

먼저 『한국전란년지』를 통해서 전란지의 편찬 체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종합일지, 참고문헌, 통계, 도표와 각 위원의 집필개설 항을 설정하고 있다. 전란년지는 1950년 5월 1일부터 1951년 6월 30일까지에 일어난 사실과 이에 대한 자료를 다룬 것이다. 이를 다시 목차 구성의 차원으로 분류해보면 수권(卷首: 제자, 사진, 서, 발간사), 제1부 개설편, 제2부 일지편, 제3부 문헌편, 제4부 통계편, 부표-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직원 일람 순이다. 특히, 제1편 개설의 집필은 당대의 역사분야의 명사들이 집필을 담당했는데, 총설은 이병도, 전투개황은 김원룡, 정훈전소사는 이선근, 국내정세는 신도성, 국제정세는 이용희, 그리고 적색괴뢰의 정체는 김상기가 각각 맡았다. 그리고 김원룡, 한우근, 전해중, 정병학, 민석홍, 강신항, 정양완 등 소장학자들이 역원으로 참가하였다.³⁸⁾

전란사의 체제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한국전란지의 편찬에 있어서 정부 인사를 비롯한 외국인사들 다수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열거하자면 제1권의 서문에는 부통령 김성수,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국무총리 장면, 국방부장관 이기붕, 유엔 한국위원단장 파키스탄 대표 미안 지아우드 딘(Mian Ziaud Din), 주한 미국대사 존 J. 무치오(John J. Muccio), 주한영국대리공사 A. C. S 아담스(A. C. S. Adams), 주한중국대사관 대리관무 참사관 쉬샤오창(許紹昌), 그리고 발간사의 성격을 지니는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준장의 서문이 실려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수 인사들의 서문을 실은 것은 김성수 부통령이 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쟁의 의의를 일층 천명함과 동시에 전략의 희생이 된 우

38) 필자는 1992~1995년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정양완 교수님으로부터 학문을 입은 바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전쟁 당시의 전사편찬위원회의 생활에 대한 감회를 피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양완 교수님은 爲堂 鄭寅普 선생님의 여식으로서 평생 국문학자의 길을 걸었고, 그의 부군인 강신항 역시 국문학자로 모두 국방부의 전사편찬위원회와 인연이 있었다. 본고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생각했지만, 원고의 시일이 촉박하여 실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리 국군 및 우방 각국군의 장병과 모든 애국동포의 영혼을 위로하고 아울러 금후 일층 용기를 진작하고 민주 우방과의 결속을 굳게 하여 공산침략 세력을 격쇄하고 국토통일 세계평화 확립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³⁹⁾ 다시 말하면, 전란사의 편찬을 통해 전쟁에 대한 국내·외적인 지원과 자유민주우방의 연대를 호소하고 나아가 그 힘을 결집시켜 통일을 이룩하려는 결속과 의지의 총화를 표출한 것이었다고 할 만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설로서 전쟁과 관련하여 내외의 제반 정세와 동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총설, 전투개황, 정훈전소사, 국내정세, 국제정세 및 한국에 있어서의 적색괴뢰의 정체 등 6편으로 나뉘어 서술한 점도 전란사의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이다. 특히, 6·25전쟁이 사상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정훈전소사(政訓戰小史)라는 사상전 분야를 다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한국전란2년지』를 보면 그 체제와 규모는 대략 1년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⁴⁰⁾ 제1부 개설, 제2부 일지, 제3부 문헌, 제4부 통계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부의 자세한 범례가 해당 편머리에 따로 실려 있다. 전란2년지의 내용은 1951년 7월 1일부터 1952년 6월 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 기록이다. 「서문」으로는 국방부장관 신태영, 국방부차관 김일환,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준장,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공군참모총장 김정렬, UN군 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Mark W. Clark)와 전 사령관 M. B. 린지웨이(M. B. Ridgway), 제임스 A. 밴프리트(James A. Van Fleet), UN군 해군사령관 로버트 P. 브리스코우(Robert P. Briscoe), 전 사령관 C. 터너 죠이(C. Turner Joy), UN군 공군사령관 O. P. 웨이랜드(O. P. Weyland), 그리고 발간사격인 「한국전란2년지」 간행에 대한 국방부 정훈국장 임대순 대령의 글이 실려 있다.

전란2년지는 전사편찬회의 발전과 더불어 1952년 3월에 기구를 쇄신하고

39) 金性洙, 「序」, 『韓國戰亂1年誌』, 1쪽.

40) 大韓民國 國防部 政訓局 戰史編纂會, 『韓國戰亂2年誌』, 1953.

편찬업무에 유경험자를 배치하여 이병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자료의 획득, 국내·외 문헌의 취사선택 및 번역, 기록의 정리 등에 힘써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유엔군의 전투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각국의 군으로부터 전투기록을 청취하여 이를 역재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었다.⁴¹⁾

2년지는 ‘휴전회담과 포로문제’에 대해서는 이선근 전 정훈국장이, ‘국제정세’는 조의설 교수가, ‘국내정세’는 전 책임장교 이상조 대위가, 그리고 ‘전투개황’은 전 역원 김원룡이 각각 위촉을 받아 집필하였다. 특히, 나머지 ‘총설’은 이병도 위원장이 직접 집필했으며, ‘적측의 동향’은 이관구 부위원장이 집필하였다. 그 외에 고병익, 곽윤직, 함홍근을 비롯하여 허현, 주요섭, 민석홍, 이기문 등 소장학자들이 역원으로 참가하였다. 이렇듯 당대 사학계의 명사와 재원들이 전란2년지의 편찬에도 역시 참여함으로써 한국전란지는 그 이름대로 국가적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 전사편찬회의 재조직

앞서 국방부 전사편찬회가 조직된 시기와 관련하여 필자는 기존 공간사에서 1952년 11월 1일 조직편성에 이어 1953년 국방부 기구표에 그대로 기구가 존속된 사실 이전에 전사편찬기구가 조직되었음을 거론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1950년 7월 후퇴작전시 대전에서부터 전사계로 시작되어 그해 10월 전사편찬회가 조직되었다가 1951년 1월 15일 군사영화촬영소와 더불어 국방부 정훈국의 전사편찬회로 개편되어 한국전란지를 계속 편찬했음은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던 중 전사편찬회는 국방부의 기구 개편을 통해 정훈부의 전사과로

41) 任大淳, 『韓國戰亂2年誌 發刊에 際하여』, 『韓國戰亂2年誌』, 15-16쪽.

개편되었다. 1953년 8월 5일의 일이었다. 당시 국방부는 정부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다가 수도 서울로 각 부처와 보조를 맞추어 8월초에 환도를 완료한 후 기구개편을 했던 것이다.⁴²⁾ 이제 국방부의 제2국이 해군국으로 바뀌고 종래의 정훈국은 폐지되었는데, 정훈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장관직속으로 정훈부를 두게 된 것이다. 그러한 정훈부에 영화과와 더불어 전사과 등 5과가 조직되었다. 정훈부의 조직으로서 전사과는 자료계·전사계·부사계로 나누어졌는데, 0-6, E-5, C-15(과장 대령 1, 보좌관 중령 1, 과선하 상사 1)로 편성되었다.⁴³⁾ 이러한 조직 개편으로 『한국전란 3년지』는 1954년 3월 1일 국방부 정훈부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⁴⁴⁾ 이후 전란지 4, 5권 역시 모두 국방부 정훈국 소관으로 발행된다. 당시 편찬조직은 비록 정훈부의 전사과에 있었지만 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총설 집필자 이병도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한, 이기백, 윤무병, 고병익, 김경태, 김용성, 김재순 등 사학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1955년 2월 25일 국방부 정훈부는 정부조직법의 공포에 따라 다시 국방부 정훈국으로 개편되었다. 그 무렵의 정훈국 편성표에 의하면 이제 전사과가 없어지고 일반교육과 내에 편찬계로 편성되었다.⁴⁵⁾ 그러한 조직 편성에 따라 실제로 1955년 6월 1일 발행된 『한국전란4년지』는 총설을 이병도가 담당하고 국제정세 및 휴전후의 공산측 동향을 주요한이 집필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3군에서 각각 작성한 것을 박영호가 정리하여 편찬하는 형태로 추진되었고, 서말에 제시되었던 편찬담당의 인명록이 결락되어 있다. 그후 5권에는 다시 편찬담당자의 인명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방부 정훈국의 일반교육과에서 전란5년지를 주관하고 편찬계에서 실무를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설을 비롯한 개관을 집

42) 「국방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814호」(1953. 7. 28); 大韓民國國防部, 『國防部史』 第1輯, 158, 267쪽.

43) 大韓民國 國防部, 『政訓大系』 I, A91쪽.

44) 大韓民國 國防部 政訓部, 『韓國戰亂3年誌』(1954. 3).

45) 「정훈국 편성표」(1955. 6. 10).

필한 이병도와 주요한이 협조인사로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전쟁사의 편찬계보는 제4권 편찬부터 전사편찬회의 조직이 국방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기본편제로서 전사과나 혹은 일반교육과의 편찬계 등으로 재편되면서 편찬조직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1956년 1월 1일의 국방부 정훈국의 편성표에는 전사편찬회의 기능이 교육과의 편찬계에서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조직편성은 실제 국방부의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전사편찬 부서가 해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3년말 당시 국방부 김성은 장관이 한국전쟁사 편찬을 결심하고 전사편찬의 조직으로서 전사편찬위원회를 재설치한 것은 바로 그러한 까닭이었다.⁴⁷⁾

전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인 직제가 공포된 것은 1964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1904호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국방부의 정훈국의 기본업무로부터 발전한 기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1962년 6월 23일(각령 제835호) 국방부 정훈국 정훈과에서 국방사편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것이라든지 혹은 1963년 12월 16일(각령 제1702호) 국방부 정훈국이 정훈섭외국으로 개칭된 이래 국방사 연구와 편찬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1964년 8월 7일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근거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 자문기관으로 “전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⁴⁸⁾ 제정이유는 한국동란에 관한 종합전사의 편찬발간과 사료수집 및 연구발전을 위해서였다. 이에 앞서 국방부 일반명령 제4호에서는 한국동란의 정사편찬(正史編纂)을 위하여 국방부에 전사편찬위원회를 두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⁴⁹⁾ 이리하여 1950년 전쟁 도중에 시작된 전사편찬의 기능이 부활되

46) 「정훈국 편성표」(1955. 1. 1).

47) 文熙爽, 「發刊辭」, 『韓國戰爭史』Ⅱ,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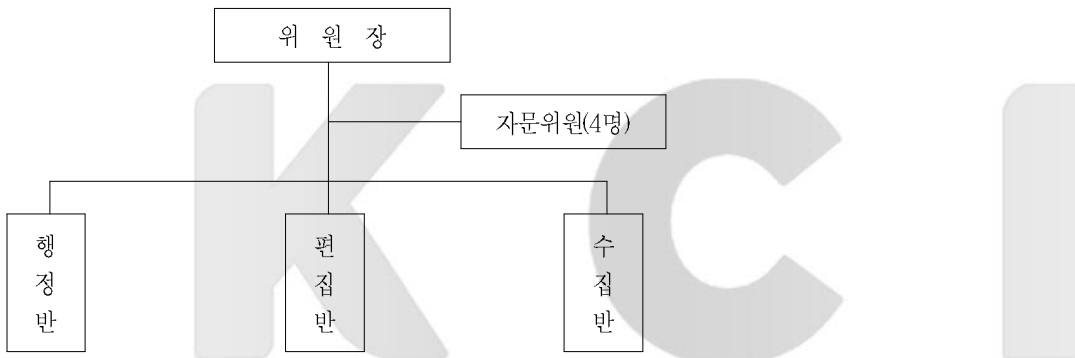
48) 「大統領令 第1904號」(1964. 8. 7).

49) 「國防部 一般命令 第4號」(1964. 2. 24).

어 이제 전사편찬위원회는 공식적인 정사로서 전사편찬을 위한 기구로 재출 발하였다. 그렇게 조직된 전사편찬위원회의 기구 편성은 <표 3>과 같다.

국방부의 전사편찬위원회의 조직은 처음에는 군인 12명(중령 1, 소령 5, 하사관 2, 병 4)에다 일반 4명(위원장 1, 위원 1, 속기 1, 타자원 1) 등 총 16명으로 하였다. 그리고 편찬위원으로서 1명과 비상근인원으로서 자문위원 4명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1964년 8월 7일 정식 직제가 공포될 당시에는 군인 28명(중령 4, 소령 6, 하사관 3, 병 15)에다 일반 14명(위원장 1, 위원 6, 촉탁 5, 타자원 2, 그리고 비상근 자문위원 5)으로 증편되었다. 당시 위원장은 예비역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명하거나 위촉하였는데, 초대 전사편찬위원장에는 문희석(재임기간: 1964. 2. 28~1970. 3. 25)이 임명되었다.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명하거나 위촉했으며,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자문위원과 영관급 장교의 전문위원을 두고, 자료수집·조사·연구와 정리를 하는 일을 맡았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었다.⁵⁰⁾

<표 3> 전사편찬위원회의 초기 기구 편성⁵¹⁾



50) 國防部, 『國防組織變遷史』, 1992, 1017-402~404쪽.

51) 國防部, 『國防組織變遷史』, 1992, 1017-403쪽.

그후 국방부의 전사편찬위원회는 1980년 3월 8일 기획자료실을 비롯하여 국방사실, 한국전사실, 서양전사실, 그리고 민족군사실 등 5실로 편성된 기구개편을 단행하고, 군인 14명(중령 4, 소령 4, 사병 6)과 일반 민간인 45명(위원장 1, 위원 34, 서기 10)으로 구성된 종합 전사편찬기구로 확장되었다.⁵²⁾ 그리고 1986년 11월 20일 한 차례 기구개편을 거친 후,⁵³⁾ 1988년 12월 31일 전쟁기념사업회(법률 제4076호)가 설립됨에 따라 부설기구(豫備軍史研究所)로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2년 1월 1일 전사편찬위원회는 폐지되고 전쟁기념사업회 부설 국방군사연구소가 설치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국방군사연구소의 설치목적은 국방/군사분야의 역사를 연구/편찬하며,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는 것이며, 나아가 역대전쟁 및 전란사에 관한 연구/편찬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정원은 52명(별정직 2, 연구직 33, 관리직 8, 기능직 9)으로 편성되었다. 1999년 1월 1일 국방군사연구소는 21세기를 향한 작고 효율적인 군 역사연구 및 편찬기관으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그 소속이 전쟁기념사업회 부설에서 한국국방연구원 부설로 바뀌면서 정원도 50명에서 38명으로 조정되었다.⁵⁴⁾ 그러던 중 2000년 9월 1일부로 그 법적 지위를 국방부 직속으로 변경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 새롭게 출발하였다.⁵⁵⁾

52) 「大統領令 第9804號」(1980. 3. 8); 國防部, 『國防組織變遷史』, 1017-405쪽.

53) 「大統領令 第381號」(1986. 11. 20).

54) 國防部, 『國防組織變遷史 II(1992~1999)』, 1999, 602-284쪽.

55) 「大統領令 第16949號」(2000. 8. 17) 국방군사연구소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서 법적 지위가 변경됨으로써 군사편찬연구소의 출발은 창설 성격을 띠었다. 그 구성원의 신분 또한 종래 민간연구원/관리원과 달리 전원 별정/일반 군무원으로 전환되었다. 편성은 2000년 9월 1일 출발과 동시에 신규로 공개 채용과정을 거쳐 최초 14명이 임용된 이래 연차적으로 충원이 계속되었다.

4. 맺 음 말

이상에서 6·25전쟁 당시의 우리 군의 전사편찬 실태와 그 이후, 전사편찬 조직의 변천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군에서 전사편찬의 기능은 비단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그 중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우리 군의 전사편찬의 산파역할을 했다고 할 6·25전쟁 당시 이선근 정훈국장은 『한국전란1년지』의 서문에서 전사편찬의 의의를 크게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전사편찬이란 역사의 편찬으로서 사실과 자료의 수집, 기록·정리는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중요하며, 특히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란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 업무 자체가 편사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날의 전훈으로 재생산되어 싸우는 장병, 싸우는 국민의 생생한 교훈이 되고, 정신양양과 사기진작의 모체로도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사편찬의 역사적 예로서 충무공 이순신이나 서애 유성룡의 전란 기록인 난중일기와 징비록을 들면서 그러한 작업이 당시에 세워놓은 군사적 위훈이나 정치적 업적보다 값있고 빛나는 업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우리들은 저 임진왜란과 같은 미증유의 대국난을 겪으면서도 삼도수군통제사인 충무공 이순신이 가장 치열한 작전지휘의 그날그날 쉬이지 않고 “난중일기”를 맨들어 후세에 전한 것이라던가 영상 유성룡이 당시의 체험과 견문을 “징비록”에 수록하여 후세에 전하여 준 그 업적에 최대의 감사를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니 어느 의미에서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세워놓은 군사적 위훈이나 정치적 업적보다도 그 일기 그 수록이 좀 더 값있고 빛난다고 보여지는 때문이다. ... 개인으로도 이러하거던 하물며 민족이나 국가로서야 편사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일컬어 무엇하랴? 그날그날의 생생한 교훈을 찾기 위하여 屍山血河 속에서 귀중한 자료를 주어 모으며 후손만대의

겨레를 위하여 역사를 엮을 줄 알며 이를 애끼고 또 전할 줄 아는 것은 곧 바로 그 민족 그 국가가 “문화”이나 “야만”이냐를 규정짓고 마는 관건으로도 되는 것이다.⁵⁶⁾

그러나 한국전란사의 편찬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국방부내 전사편찬의 기능은 조직상으로는 국방부 정훈국내에 임무 정도 남겨두고 사실상 해체되었다. 그러다가 전사편찬의 조직이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부활한 것은 전술한 대로 1963년도 공식적인 한국전쟁에 관한 정사 편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휴전후 미국을 위시하여 한국참전 UN 국가에서 그들의 참전사를 발간하는 한편 북한에서도 1959년 『조국해방전쟁사』를 발간하여 세계 각국에 배포하여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김성은 국방장관은 1963년말 『한국전쟁사』의 편찬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편찬에 착수한 『한국전쟁사』 제1권이 1967년 발간하게 된 데에 대하여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사무친 체험과 교훈을 명심하여 조국근대화로 자유세계의 번영을 위하고 통일성업을 완수하는 데 대비해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1964년에 한국전쟁사 편찬사업의 발족을 보았습니다. 휴전후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시작하게 된 만큼 사료분실, 필자부족, 예산 등의 문제에 있어서 허다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함극을 인류공동의 체험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기록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체험을 보편화하고 역사화해야 했습니다.⁵⁷⁾

이렇게 전쟁기에 자료수집과 후일 정사 편찬을 위해서 시작한 6·25전쟁 기록인 『한국전란지』의 편찬이 『한국전쟁사』 편찬이라는 발전적인 편찬사

56) 이선근, 「한국전란1년지 발간에 대하여-전사편찬회의 발족과 그 경과」, 15쪽.

57) 金聖恩, 「序文」, 『韓國戰爭史』Ⅰ.

업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군 지휘부의 역사의식과 시대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역사를 통한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념전과 사상전 형태를 띤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김성은 국방부장관의 「서문」에서도 분명하게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전쟁의 체험을 보편화하고 역사화하겠다는 인식은 그 무엇보다 6·25전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민족사적 차원에서 조명하려는 역사의식의 발로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점이라 하겠다.

그러한 역사의식 하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사편찬은 군사 전반에 걸친 연구와 편찬으로 그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군사 연구자들의 수나 그 질적인 성과도 보인다. 더군다나 각 대학에 군사학과가 설치되어 군사학 연구의 기초 분야로서 군사사 연구 또한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국의 저명한 군사사학자인 브라이언 본드(Brian Bond)가 경고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지 않은 실증성이 결여된 사회과학적 이론과 분석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역사연구를 기반으로 한 충실한 군사학 연구야말로 한국의 군사적 발전을 기약하는 기본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5. 7. 18, 심사완료일 : 2005. 8. 9)

주제어 : 군사편찬, 전사편찬회, 한국전란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The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and Its Operating System of the ROK Army during the Korean War

Baek, Ki-in

At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a Compilation of War Historical Records and Compilations was not performed by an official organization. Later, however, it was done officially. Furthermore, while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y and the US Army maintaining their alliance, the War Historical Records of the Combined Operations were written with their official records. Lat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published a book with those records once every year from 1951 to 1956. It was called 『Korea in War』.

The Korean War Records 『Korea in War』, which was published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War in order to study them later, was developed into 『History of Korean War』. This development has an ideology and a thought against history awareness of army and periodic distortion and propaganda of North Korean History. However, as *Kim Seong-eun*, Minister of MND, had clearly mentioned in 'preface', the most important significance of compilation of the Korean War is to generally inform the experience of the War and a perception of make that experience be recorded in a history.

Under that consciousness of a history, our nation's compilation of War Historical Records and Compilations expanded its scope through a study and compilation of Military History.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Number 1904, the Korean War Compil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officially in August 7, 1964 for the purpose of study and compilation of the War History. The Korean War Compilation Committee, MND, later, was reorganized to increase its members with more than 50 and became comprehensive organization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After that, it was, again, reorganized in January 1 1992, to become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History, an affiliated organization to the War Memorial of Korea. On September 1, 2000, its legal status has become directly responsible to MND, so it was restarted as the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Therefore, MND's official administration of organization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become a foundation to make a studying military history and an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olicy more solidity with a support that is based on a historical experience.

Key Words :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Korean War Compilation Committee, Korea in War,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K C I